

함평군, 전 공직자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 다져

공직자 270여 명 참석...군민 중심 적극행정 실천 등 이상의 군수 “군민 감동하는 행정 펼쳐주길 바라”

함평군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14일 “이상의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직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은화 주무관(총무과)과 김영도 주무관(재무과)이 함평군 공직자를 대표해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 ▲불합리한 규정·업무관행 타파 ▲소극행정 지양 ▲군민 행복 위한 선제적·능동적 정책 발굴 등의 내용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전 공직자의 의지를 담았다. 이어서 이상의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실천해요! 적극행정, 함께해요! 감동행정’ 구호를 제창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오늘의 다짐이 결의에 만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김광준기자

무안군 “맛탕도 먹고 축제 즐겨요”...18~19일 이틀간

무안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무안읍 불무공원에서 무안맛탕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무안 지역의 광활한 땅에서 생산되는 쌀과 고구마를 이용해 다양한 간식거리와 즐길거리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맛탕 먹거리, 맛탕 볼거리, 맛탕 놀거리, 맛탕 살거리 4개의 맛탕으로 구성돼 있다.

김명진 무안군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개최한 무안맛탕축제를 통해 무안 쌀과 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한 색다른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맛있는 축제, 재미있는 축제 무안맛탕에서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안맛탕축제의 공식일정은 11월 18일(금) 14:00~18:00, 11월 19일(토) 12:00~17:00까지로 무안군승달문화예술회관 맞은편 불무공원에서 진행된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목포9미(味)푸드콘테스트 성료



목포시가 지난 12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에서 열린 '목포9미푸드콘테스트' 시상식 모습이다.

해관 1897에서 '목포9미푸드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목포의 대표 식재료인 9미(나지, 홍어, 갈치, 병어, 우럭, 준치, 민어, 아귀, 꽃게)를 홍보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MZ세대의 입맛과 취향을 공략할 레시피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1차 서류심사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청년이 찾는 목포의 맛'이란 주제로 열띤 요리 경연을 펼쳤다.

심사는 음식의 완성도, 맛, 창의성, 대중성 및 보급가능성, 청결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시민들로 구성된 품평단 심사로 진행됐다. 그 결과 김재현(39·청원)씨의 민어술밥과 꽃게강정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이어 박준형(19·목포)씨의 병어술밥, 석명원(21·목포)씨의 아귀감바스와 아귀볼 샐러드가 우수상을, 조소영(46·광주)씨의 아귀간pong기와 아귀간부침, 정슬기(18·목포)씨의 민어스테이크와 해물떡볶이, 서유진(48·안양)씨의 아귀크로켓과 우럭카르파초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재현씨는 “목포 9미의 고유한 풍미를 살리면서 젊은 세대의 입맛과 호기심을 공략할 수 있는 요리를 구상했다. 앞으로도 9미를 활용한 음식들을 더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목포의 대표 맛인 9미로 청년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청년들도 좋아하는 목포의 맛을 브랜드화해 목포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영암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덕진 영등지구 외 6개 지구 3,105필지(2,466천㎡)에 대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3개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시범사업지구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선정배경, 추진절차, 협조 사항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앞으로 시범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선정배경, 추진절차, 협조 사항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앞으로 시범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김장오 영광부군수, 희귀 야생조류 서식지 육산도·각거도 현장점검

특정도서 생태계 변화 및 훼손 여부 조사, 환경보전 당부

김장오 영광부군수는 지난 9일, 관내 특정도서 정기조사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육산도와 각거도를 방문하여 생태계 훼손 여부, 자생식물, 경관 상태 등 자연환경을 점검했다. 육산도와 각거도는 환경부로부터 2016년, 2017년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로 인정받아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야생조류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방문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육산도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뽕재비갈매기'의 번식지로 등록된 곳이며 천연기념물 저어새·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물떼새, 갯이갈매기 등의 주요 번식지로 그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제389호)로 지정되었고, 각거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매와 칼새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이날 김장오 부군수는 우수한 생태자원에 대한 홍보를 지시하고, 조류 연구를 위해 설치된 장비들을 점검하며 서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였다.



김장오 영광부군수는 우수한 생태자원에 대한 홍보를 지시하고, 조류 연구를 위해 설치된 장비들을 점검하며 서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 암태면, 극심한 가뭄에 '수돗물 아껴쓰기 총력전'

신안군 암태면(면장 박용재)은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수곡상수원지 저수량이 25%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11월 8일 암태면 수곡상수원지 현장에서 이장회의를 개최하고 수돗물 아껴쓰기를 당부했다.

11월 현재 누적 강수량은 676mm이며 평년 대비 48%에 불과하고, 향후 기상청의 장기 전망도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보되어 장기적으로 가뭄이 지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암태면에서는 가뭄대책으로 인근 지하수 관정과 광역상수도에서 원수공급을 추진해오며 인근 수곡마을 농업용 저수지에서 관로를 연결하여 향후, 가뭄극복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가뭄 극복을 위해 농작물에 상수원 물을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단속예정이며, 주민들에게 개별문자로 홍보를 실시하고 담당마을 공무원이 각 가정 계량기 점검으로 수돗물 아껴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